



###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⑥ 5백자 수기품

사리푸트라(舍利弗)가 대승 사상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었음에 대해 기뻐하는 말을 들은 석존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매우 흥미롭다.

“사리푸트라여, 그대는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의 제자였다. 그대는 그러한 사실을 잊고 자기 혼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그대로 하여금 본래의 서원(本願)에 의해 행했던 바를 생각해 내도록 하겠다.”

이것을 <묘법연화경>의 번역자 쿠마라지바(鳩摩羅什)는 다음과 같이 격조 높게 기술하고 있다.

사리푸트라여, 나는 전생에서 그대에게 (최고의 깨달음인)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듯 가르쳤는데, 이 세상에 와서는 그것을 말끔히 잊어버리고 (내가 손쉽게 실천 가르침만을 그대로 믿고 이미 완전한 열반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해 버렸으니, 나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세운 본래의 서원(本願)과

하는 부분은, 법문(梵文)에서는 “그대는 오랫동안 나의 제자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먼 옛날부터 사리푸트라에게 불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리푸트라는 그 사실을 “말끔히 잊어버리고 자기는 이미 열반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해 버렸으니”라고 하며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 대해 석존께서는 혼계한다.

석존께서는 사리푸트라에게 “그대는 자기 몸에 불성이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자기 힘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대의 힘이 아니라 그대의 몸과 마음 속에 갖추어져 있는 불성이 그대를 깨치도록 한 것이다”라며 다시 석존은 “나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 그대에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세운) 본래의 서원과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행한 갖가지 수행을 다시 기억해 내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신다.

## 내면에 간직돼 있는 불성 깨달음통해 드러 내는 것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행한 갖가지 수행을 다시 기억해 내도록 하기 위해 그대를 비롯한 많은 성문들에게 대승의 가르침인 묘법연화·교보살법·불소호법을 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석존의 말씀에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그대는 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도록 운명지어졌다”는 말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의미 심장한 말씀이다. 이 말의 뜻은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法·教·道)’에 의해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성(佛性), 다시 말해 부처님의 성품(性品)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미 부처가 된다는 수기(授記)를 받고 태어난 셈이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으므로 새삼 부처님께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의식(儀式)이 바로 수기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믿는 것이며 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고통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전생에서 그대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듯 가르쳤는데”라고

이 잊고 있는 불성의 진실을 기억해 내는 것이 곧 제도되는 것이며 기억해 내고 눈뜨는 것이 깨침인 것이다. 이렇듯 ‘제도(濟度)’와 ‘깨치는 것’은 동의어(同義語)의 관계이다.

다음에 석존께서는 사리푸트라가 본원(本願)에 의해서 얻은 바의 길을 잊어버리고 있으므로 이 사실을 “기억해 내도록(憶念)하라”고 말한다. 즉 기억해 내도록 하려는 것이 새롭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내(釋尊)가 말하는 가르침이란,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을 기억해 내도록 하여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배운 어떤 비유도 모두 이 ‘억념(憶念)’을 위한 것이었음이 여기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 ‘외리(依拠) 계주(繫珠)의 비유’를 음미하면 진리는 가르치려 한다고 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며, 본인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데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하면 생각해 내도록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점에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본다.

■무설성사 조실

# 목숨 던질 간절한 신심있어야



## 가까이서 뵈 큰스님

### 운하스님 (통도사 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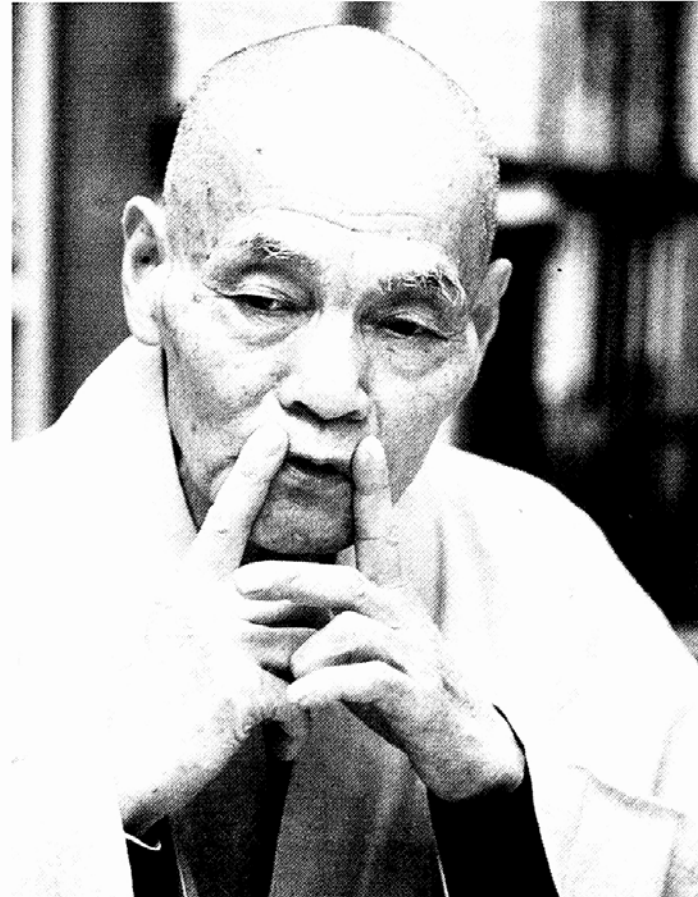
부처님의 설법은 그 내용의 방대함과 비유의 다양함에서 단연 독보적이다. 부처님의 설법이 이렇게 방대해진 것은 부처님께서 대기설법 즉, 응병여악(應病與藥)의 법문을 설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문은 자칫 부처님의 법이 듣는 이에 따라 달라졌다는 오해를 사기 쉽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일음(一音)이다. 듣는 중생이 자신의 능력, 신심에 따라 부처님의 법을 이해한 것일 뿐 부처님 법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의 그릇, 나의 신심, 나의 능력이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열쇠임을 부정할 수 없다. 부처님의 법은 성도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어져 왔음에도 우리가 그 가르침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한계요, 허물이니, 우주에 가득한 부처님 진리 가운데서 나의 병에 맞는 약방문을 발견하는 지름길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붉은 매화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통도사 시냇가. 그자로 꺾어진 시냇가 심우당(禪牛堂)에서 만나 뵈 운하(79) 스님은 이런 생각을 더욱 골똘히 하게 만든다. 뒷마루 앞에서 바람결을 따라 흘러온 꽃향기에 취해 심우당으로 들어서자 소박하고 정갈한 방안에 꽃향기보다 더한 수행의 향기가 스며있는 듯하다.

“나도 배우는 중이라 할 말이 없다”는 스님께 재차 법문을 청하자 “아무 이득이 없는 일을 그만두고 공부 길로 들어서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다.

“먹고사는 일은 도를 닦는 사람에게 중요하지도 않고, 또 도를 닦는 것에 정성을 다하면 먹는 것은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어요. 깊은 바위에 앉았어도 먹는 것이 생기는 게 부처님 법이예요.” 이것저것 세상일들을 다 하면서 공부하

실마리를 찾아야 돼. 법이라는 게 뭐길래, 밤새도록 눈 맞고 일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법을 들으려고 애를 쓴 해가 스님에게 그런 신심으로는 안된다고 한 것이니 골똘히 의심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팔을 굽어 바치는 신심을 보인 후에야 비로소 법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 부처님 법은 어떻게 보면 쉬운데, 그런 것을 살펴보면 너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끝은 어디로 가든지 편안하기는 할 터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골치가 아파, 과연 이 길로 가서 목적지에 가는 건지, 도를 깨쳤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깨쳤는지, 자기가 깨달아 보지 않고는 모두가 모르는 것 투성이야. 누가 도인이라고 해도 내가 도인이 아닌 이상 확실히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요즘 불교는 고민이 없어, 불교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



◇운하스님은 하루하루 의식의 덩어리를 풀고, 일념으로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 화두는 본래 경전엔 없는 말 끝없는 의심통해 수행점검

겠다는 생각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욕심”이라는 스님의 말씀은 세상일을 핑계로 공부를 게을리하는 이들에게 내리는 불호령으로 들린다.

“공부만 일념으로 하는 사람과 세상 일 다 참견하는 사람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출가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 뜻을 세워 공부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후에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따라 그대로 살면 돼요. 또 하나, 도를 닦는 사람이 적당하게 세월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목적지와는 거리가 멀어.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도를 닦는다고 생각을 하면 진리의 세계로 확실하게 나를 이끌어 스승에게 생사를 바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해. 목숨이라도 던질 수 있는 간절한 신심이라야 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달마 스님과 해가 대사의 얘기를 연상해 봐요. 거기서

는 법이라 했는데 어쩌서 뜻이 같지 않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게 송이 남겨져 있는지, 경전에는 견성을 하면 왜 감추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지 통 알고 하지를 알아. 알음으로 안 것으로 다 안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게 문제예요.”

스님은 의심의 덩어리를 풀고 하루를 보낸다. ‘감기에 들까봐’ ‘다리에 힘이 없어서’ 등 말하기 쉬운 핑계로 바깥출입을 삼가는 스님은 도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심우당 좁은 공간을 우주인 듯 여기며 지내고 있다. 3년 전 생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공양을 위해 큰 절로 걸음을 했으나 가루 생식으로 공양을 대신하고부터는 거의 출입을 하지 않는다.

“뉘든지 버릇해야 하고 싶은 법이야. 바깥출입 하지 않으니 방안에 있는 게 좋아.” 가섭 존자에게 전해졌던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이어받기 위한 정진으로 스님의 일상엔 지극히 고요하고 한가해 보이지만 결론을 앞둔 무사의 칼날이 숨어 있다.

스님은 3년 전 죽을 고비를 거뚫어 넘기며 살아난 이후 생식을 시작했다. 그때 얘기는 통도사 내에서도 아는 스님이 많다. 스님의 상좌와 주지 그리고 방장 스님 모두 스님의 장례식 절차까지 의논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무슨 인과였는지 불니를 해 놓았던 게 잘못되면서 죽을 고비까지 넘겼지. 병원에서 내 방으로 와보니 이미 비워져 있더군요. 내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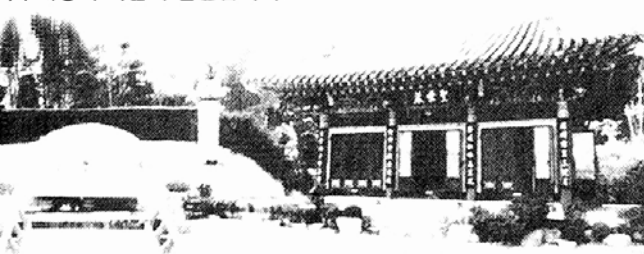
짐을 치워버린 거지. 허허허! 죽을 직전까지 갔다 와보니 죽음이란 게 참 괴로운 현상이란 걸 알게 되었지. 완전히 기진맥진해지니까 시아가 희미해져. 정신을 차려서 보려고 해도 구름이 낀 것처럼 시아가 희미해지더라고. 죽음이러는 고통은 아픈데가 없어도 몹시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어쨌든 가는 날까지 후회 없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늘 다지고 있지. 자유를 얻어야지. 얽매이지 않는 자유 말이야. 본인이 스스로 택해서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끌려가면 안 되잖아.”

## 정월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효행을 실천한 사찰로서 성모님 묘소와 더불어 조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 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명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 도량에 왕림 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호남고속도로 전주IC에서 군산방면 - 대야점순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 성모암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IC. 서김제IC에서 5분거리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중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388번지 불거촌

### 성모암 대중일통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42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선축원, 불공식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율, 신중작법, 지장정관율시식, 다비식 등
· 작법반 (6개월)	요장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 원서접수 : 2002년 3월 25일까지
- ◆ 개강일시 : 2002년 3월 26일 오후 5시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암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도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 741-0495, 0496

###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출세를 하세요!

###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승려 및 포교사 2기 학인 모집

- I. 승려 과정**  
모집과정 - 20명 (남 10명, 여 10명) 1년 수료과정  
자 격 - 나이 제한 없음, 중졸이상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여권용)  
모집기간 - 2002년 3월 30일까지
  - II. 포교사 과정**  
모집과정 - 20명 (남 10명, 여 10명) 3개월, 6개월 과정  
자 격 - 연령 학력 불문, 포교원, 철학원 환영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여권용)  
모집기간 - 2002년 3월 30일까지
- 교육방법 : 우리말 경전 및 의식으로 단기간 내에 승려 및 포교사 자격 취득
  - 특 전 : 1. 본 대학 수료 후 종단내 사찰에서 100% 수용  
2. 입학금 수업료 일체 무료. 단, 의식비 월 1만원
  - 문의전화 : (033)371-7751~3 팩스 : (033)671-7754

※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총립 근본불교 승가대학